

신안군 햇빛연금 4년만에 220억 돌파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매년 급증 해상풍력 완공 내년 연간 137억 군민 52% 1만9875명 혜택 제공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시작한 햇빛연금 누적 수익이 지난해 말 현재 220억원을 넘어서면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햇빛연금은 2021년 첫 지급액 21억원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220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는 120억원을 예상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137억원을 지급할 방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햇빛연금은 첫 지급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해 2023년 3분기까지 100억원을 달성했으며, 2024년 4분기까지 현재 22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전남해상풍력(주)이 완공되면 바람연금을 포함해 2025년부터는 연간 수익액이 120억원을 넘어서고, 신의면 태양광발전 완공 후 2026년부터는 연간 137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장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도 지급을 시작했다.

18세 이하의 아동 약 3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1인당 80만, 올해에는 월 10만원씩 증액해 총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안 임자면 주민들이 햇빛연금 지급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이다. 현재 햇빛연금 지급 지역인 안좌, 자라, 지도, 사육도, 임자도, 비금도 등 6곳과 그 외 읍면 햇빛아동수당을 포함한 대상은 군민의 43%로, 총 1만 6333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공사 중인 자은면 해상풍력과 신의면 태양광발전 시설까지 포함되면 햇빛·바람연금을 받는 주민의 비율은 약 52%로 총 1만9875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 군에 포함된 신안군은 2024년 12월 기준 총인구 3만 8173명으로 전년 대비 136명 증가했다.

2023년에도 179명 증가했으며 전남의 인구 감소 지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 바람연금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군은 현재 원만하게 진행 중인 해상풍력 및 부유식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주민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기후변화 대응과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주셔서 오늘날의 햇빛연금의 큰 성과가 실현될 수 있었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빠르게 추진하여 군민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전담팀구성 교육발전특구 조성 속도

4대 전략 29개 세부과제 추진

해남군이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위해 군과 교육지원청, 교육재단 담당자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담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특구 조성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최대 100억원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혁신 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연계한 특화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발전 특구는 '해남으로 돌아오는 그린인재 육성'을 목표로 4대 전략 29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돌봄 '망끝까지 Edu-care' ▲지역교육혁신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단위 공동-연계 교육' ▲글로벌 특화교육 '해남

린인재 특화교육' ▲지산학 연계 인력양성 '해남 그린일자리 지원'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3월부터는 작은유치원 공동 교육과 초중고 그린인재 양성, 글로벌 스마트교육, 진로플랫폼 구축 등 세부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조성은 양대특구로 불리는 기회발전특구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관심을 모은다.

해남군은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에 2개소가 지정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첨단기업 유치에 중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관련 분야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명령관 해남군수는 "교육발전 특구는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남교육지원청, 지역 대학과 기업, 지역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해역에 이식된 잘피.

완도 해역 생태계 복원 이식 잘피 생존율 62%

3만7072주 생존...평균 6배 높아

완도군이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이식한 잘피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에 따르면 '바다 정화 사업'의 하나로 신지면 등에 2019년부터 해조류, 잘피 이식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잘피 4만주와 정산면 국화리에 잘피 6만주를 이식했다.

이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잘피 약 3만7천 72주가 생존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잘피 이식 후 생존율은 5~10%인데, 청산면 국화리에 이식한 잘피는 생존율이 61.8%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완도 바다가 잘피 생육에 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 추진할 사업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블루카본이 조명받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청년 농촌보급자리사업' 선정...국비 등 100억 확보

무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청년 농촌보급자리 사업지구'에 선정돼 국비 등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 주거와 보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현경면 양학리 일원에 지구별로 청년 임대주택 단지 조성, 공동보육시설, 문화, 여가 시설 등이

설치된다. 군은 3년간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을 투자해 '함께 성장하고 상상하는 티움마을'을 조성해 28가구의 청년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농업복합단지과 연계해 청년 임대 스마트 온실단지를 활용해 '티움마을'을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해상풍력 배후단지 목포신항 서남권 경제 중심지 부상

전용부두 설치하고 잇단 투자협약

목포신항이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목포는 물론 전남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항구로 거듭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신항은 신안 해상 등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지원을 위한 국내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고장량의 기자재를 적재·조립하고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특화항만이 필요하다.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필수요건인 지내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약 15만평(49만 5000㎡)의 배후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전용 철재부두(3만㎡ 1선석)와 2단계 배후단지(23만 8000㎡) 등 핵심인프라 적기 건립과 지역 내 RE100 관련 첨단산업 유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세계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터빈 제조사 '베스타스'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



목포신항 전경.

가 목포신항만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목포신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입주기업은 세제혜택,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정을 통해 목포신항은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기

반 신산업을 통한 기업 유입,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신항이 전남 서남권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항구도시 목포의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적 모범업체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